

Weekly Ulsan Economic Trends

# 주간울산경제

2023.08.14. ~ 2023.08.20.

2023년 8월 21일(월) 경제노동과

## ◎ 이슈 포커스

- 미-중 發 세계 경제 침체 경고음, 韓 상저하고 재점검 시급

## ◎ 울산 산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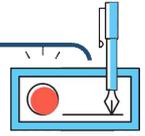
- (자동차) 수출 사상 역대 최단기간 내 수출액 400억 달러 돌파
- (석유화학) 국내 석유화학 'BIG4', R&D 투자 증가
- (조선) 韓 조선업, 선박 수주 점유율 中 제치고 1위 탈환
- (비철금속) 국내기업, 핵심광물 매장량 세계 2위 호주와 협력 확대

## ◎ 울산 경제 동향

- (부동산) '23년 8월 2주 울산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모두 감소
- (인구) '21년 기준 울산 비천족가구 6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

## ◎ 국내외 주요 이슈

- (국내) 수출입물가 전월대비 상승, 전년동월대비 하락
- (해외) 중국, 디플레이션 속 부동산 문제도 악화



## 미·중 發 세계 경제 침체 경고음, 韓 상저하고 재점검 시급

### ■ G2(미국, 중국) 경기침체 우려에 세계 경제는 암울한 상황

- 미국 국가신용등급 ‘AAA’에서 ‘AA+’로 한 단계 하락한 가운데 美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 등 70여곳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시사
  - 무디스는 지난주 10개 중소은행의 신용등급 강등, US뱅크 등 대형 은행 17곳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예고
  - JP모건 등 대형 은행의 등급이 강등되면 동종 기관 등급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, 일부 취약 은행 등의 연쇄 금융 불안 유발 소지 다분
- 중국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, 7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2.5% 증가했지만,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 기록
  - 국유 부동산 기업 ‘위안양’은 최근 2094만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함
  - 국유기업의 채무 변제 실패는 중국 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
  - 중국은 8월부터 청년실업률(16~24세)을 미발표, 이는 소비, 생산, 투자 등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불리한 경제지표를 숨기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평가
  - JP모건 등 경제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.4%에서 4.8%로 하향
- 미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
  - 미·중발 위기와 수출 및 내수 침체를 가정해 상저하고 전략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
  - 이를 토대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,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수출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

〈출처〉 세계일보(‘23.8.16.), [사설] 美·中 發 세계 경제 침체 경고음...국내 전이 차단 선제 대응을.



## (자동차) 수출 사상 역대 최단기간 내 수출액 400억 달러 돌파

### ■ 올해 1~7월 자동차 수출액 전년동월대비 41% 증가한 416억 달러 기록

- 지난해 연간 기준 자동차 수출 최고 실적 달성, 수출액 400억 달러 기록까지 10개월 소요됐으나 올해 3개월이나 단축
  - 7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% 증가한 59억 달러로 집계
  - 주요 자동차 기업의 여름 휴가에 따른 월말 조업 중단에도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 달성
  - 수출은 3월 65억, 4월 61.6억, 5월 62억, 6월 62.3억 달러를 기록
- 지난달 하이브리드차, 전기차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,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% 증가한 20억 달러 기록

### ■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 소비재 수출 2009년 이후 최대

- 상반기, 우리나라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이 16%로 2009년 이후 최대치 기록, 자동차가 전체 소비재 수출의 69.8%를 차지
  -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세계 6위, 소비재는 17위 수준이었으나, 올해 자동차 수출 호조세와 중간재 수출 위축 등 영향으로 소비재의 수출 비중 증가
  - 국내 소비재 수출은 2021년부터 증가세이며, 친환경차 수출 증가율이 30%를 상회하며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주도
  - 자동차가 전체 소비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3.8%에서 올해 상반기 69.8%로 증가

〈출처〉 KBS뉴스('23.8.17.), 자동차 수출 7개월만 400억 달러 넘겨...“역대 최단기간”.  
 아시아경제('23.8.17.), “상반기 소비재 수출 2009년 이후 최대...자동차 69%”.

## (석유화학) 국내 석유화학 'BIG4', R&D 투자 증가

### ■ 글로벌 업황 부진 속에 국내 석화기업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

- 석화 빅4의 상반기 R&D 집행 금액은 연결 기준 1조 185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% 증가
  - (LG화학) R&D 지출액은 982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0% 증가, 주요 연구 실적은 양극재와 반도체 소재, 친환경 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2분기 영업이익 1850억원을 올림
  - (롯데케미칼) 지난해 대비 100억원 증가한 582억원 R&D 지출, 제품군 확대로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 매출을 현재 7조에서 18조원으로 늘릴 계획
  - (금호석유화학) 작년대비 1% 증가한 282억원 R&D 지출, 탄소나토튜브 등 고부가 제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
  - (한화솔루션) 상반기 매출 대비 R&D 지출 비중을 지난해 1.99%에서 2.88%로 끌어올리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

〈출처〉 헤럴드경제('23.8.18.), 中직격탄 맞은 석유화학 '빅4' R&D 더 늘렸다.

## (조선) 韓 조선업, 선박 수주 점유율 中 제치고 1위 탈환

### ■ 우리나라 조선업 선박 수주 점유율 5개월 만에 중국 제치고 세계 1위

- 7월 세계 선박 발주량 333만CGT(96척) 중 한국이 146만CGT 수주
  -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동월대비 22% 증가, 한국 수주가 세계 44%를 차지하면서 5개월 만에 수주 점유율 1위 차지
  - 중국의 발주량은 113만CGT로 34% 점유율 기록, 수주 척수로 볼 때 48척으로 한국의 29척보다 많음
- 7월 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은 전월대비 19만CGT 증가한 1억 1,777만CGT
  -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5,535만CGT(47%), 한국 3,926만CGT(33%) 순으로

집계

●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72.38로 전년동월대비 10.8포인트 상승

- 선종별 척당 가격은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이 2억 6,100만 달러, 초대형 원유운반선(VLCC)이 1억 2,600만 달러,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2억 2,500만 달러로 나타남

〈출처〉 국민일보('23.8.14.), 韓 조선업, 선박 수주 점유율 中 제치고 1위 탈환

**(비철금속) 국내기업, 핵심광물 매장량 세계 2위 호주와 협력 확대**

■ **국내 산업계 호주정부, 현지 기업과 손잡고 시장 진출 가속화**

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對중국 의존도를 낮출 최적 대안으로 호주 주목

- 호주는 리튬, 니켈, 코발트 등 핵심광물 매장량 세계 2위, 구리와 희토류는 각각 3위,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세계 희토류의 약 90% 생산
- 호주는 막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 2차산업에서 존재감을 높여가는 상황

● 국내 기업들도 기회의 땅 호주에 광범위한 협력 확대를 추진 중

- (LG에너지솔루션) 2021년 호주 배터리 원재료 생산업체와 니켈 가공품 장기 구매 계약 체결, 2024년부터 6년간 전기차 13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 확보
- (SK온) 호주 자원기업에 지분 10% 투자, 전기차 49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고순도 리튬 23만t 공급 계약 체결
- (삼성SDI) 2024년 리튬을 중심으로 호주 및 미국FTA 체결 국가산 광물 활용 예정
- (포스코) 2021년 호주 니켈 광업 및 제련 업체 '레이븐소프'의 지분 30%(한화 약 2700억원) 인수 계약, 연간 전기차 18만대에 공급 가능한 니켈 가공품 확보
- (고려아연) 1996년 퀘즐랜드에 아연 제련소 선메탈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2조 5000억원 이상 투자, 최근 아크에너지·한화임팩트·SK가스·켄소시엄을 구축하고 호주에서 그린 에너지 분야 사업 진출을 공식화

〈출처〉 헤럴드경제('23.8.16.), 공급망 다변화, 탈탄소 시대...中 대신 '기회의 땅' 호주로



## (부동산) '23년 8월 2주 울산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모두 감소

### ■ '23년 8월 2주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주 대비 0.04% 증가

#### ●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.04%로 전국(0.04%)과 동일

- 구군별로 중구 0.05 → 0.05, 남구 0.03 → 0.05, 동구 -0.03 → 0.01, 북구 -0.01 → 0.04, 울주 0.00 → 0.01
-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유지, 수도권(0.09% → 0.08%)은 상승폭 축소, 서울(0.09% → 0.09%)은 상승폭 유지, 지방(0.00% → 0.00%)은 보합 유지

※ 5대광역시(-0.01% → 0.00%), 8개도(0.0% → 0.0%), 세종(0.10% → 0.10%)

#### ● 시도별로 세종(0.10%), 서울(0.09%), 경기(0.08%), 인천(0.08%), 경북(0.06%) 등은 상승, 경남(0.00%)은 보합, 전남(-0.04%), 제주(-0.04%), 부산(-0.04%), 전북(-0.03%) 등은 하락

-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(84→94개) 및 보합 지역(16→10개) 및 하락 지역(76→72개)은 감소

### ■ '23년 8월 2주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전주 대비 0.03% 감소

#### ●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-0.03%로 전국(0.04%)과 달리 감소

- 구군별로 중구 -0.05 → -0.06, 남구 -0.03 → -0.05, 동구 -0.10 → 0.00, 북구 -0.01 → -0.01, 울주 -0.01 → 0.00

#### ● 시도별로 세종(0.13%), 서울(0.11%), 경기(0.11%), 대전(0.0%) 등은 상승, 충남(0.00%)은 보합, 부산(-0.06%), 전남(-0.04%), 울산(-0.03%) 등은 하락

-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(86→89개) 및 보합 지역(11→13개)은 증가, 하락 지역(79→74개)은 감소

〈출처〉 한국부동산원('23.8.17.), 주택가격동향조사: 2023년 8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.

## (인구) '21년 기준 울산 비친족가구 6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

### ■ 울산지역 비친족 가구 가파르게 증가

- 2021년 기준 울산지역 비친족 가구(5인 이상 남남 가구)는 6845가구로, 2015년 3387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
  -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수(1만 4504명)도 6년 전(7499명) 대비 2배 이상 증가
  -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친족 가구(0.79%→1.51%)와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수(0.67%→1.35%) 비중도 2배 이상 증가
- 연령별로 30대 24.5%, 50대 20.9%, 40대 18.0%, 20대 이하 16.9%, 60대 14.1%, 70대 이상 5.6% 순
  - 반면 친족 가구주 연령은 50대 29.3%, 40대 23.8%, 60대 21.2%, 30대 13.4%, 70대 이상 10.4%, 20대 이하 1.9% 순
- 비친족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36.8%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동남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, 비친족 가구 10집 중 9집(90.1%)은 2인 가구로 구성
- 가구주 교육 정도는 대학교 이상이 54.0%로 친족 가구 44.2%보다 높게 나타남
- 거쳐 점유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41.7%로 가장 많았으며, 친족 가구는 자가 74.7%로 가장 많음

〈출처〉 동남지방통계청('23.8.17.), 「동남권 비친족 가구는 어떤 모습일까?」 기획 보도자료.



## 국내외 주요 이슈

Korea & Global Issues



### (국 내) 수출입물가 전월대비 상승, 전년동월대비 하락

#### ■ 수출물가(원화기준) 전월대비 0.1% 상승, 전년동월대비 각각 12.8% 하락

- 7월 수출물가는 원/달러 환율\*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·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오르며 전월대비 0.1% 상승

\* 원/달러 평균환율: 2023.6월 1,296.71 → 7월 1,286.30

- 농림수산물은 전월대비 1.7% 상승하였고, 공산품의 경우 컴퓨터·전자 및 광학기기,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오르며 전월대비 0.1% 상승

- 2023년 7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.8% 상승(전년동월대비 11.5% 하락)

#### ■ 수입물가(원화기준) 전월대비 0.4% 상승, 전년동월대비 각각 13.5% 하락

- 7월 수입물가는 1차금속제품 등이 내렸으나 국제유가\*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,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.4% 상승

\* 두바이유가(월평균, 달러/bbl): 2023.6월 74.99 → 7월 80.45

-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.1% 상승
-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올랐으나 제1차금속제품, 화학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1.1% 하락
-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전월대비 0.3%, 0.5% 하락

- 2023년 7월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.1% 상승(전년동월대비 12.3% 하락)

〈출처〉 한국은행('23.8.17.), 2023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.

## (해 외) 중국, 디플레이션 속 부동산 문제도 악화

### ■ 중국, 부동산 우려 증폭,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'비구이위안' 회사채 거래 정지

- 중국 헝다그룹에 이어 비구이위안(Country Garden)까지 대형 부동산업체들이 연이어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불안 심화
  - 비구이위안은 채권자들과의 회의 소집을 이유로 8월 14일부터 역대 채권의 거래 중단을 요청, 이에 11개 종류의 회사채 거래가 정지되며, 거래 재개는 별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
  - 성명서를 통해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논의하고,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, 또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순자산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
- 비구이위안 최근 상반기 순손실 450~550억 위안에 달하고, 유동성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밝혀 우려가 지속
  - 8월 7일 비구이위안은 10억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으며, 30일간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상환에 실패하면 최종 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
  - 8월 11일 비구이위안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부채 구조조정 가능성 등으로 사상 최저 수준 마감
  - 채무 상환에 실패 시, 이미 침체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더욱 악화되고, 부동산 부문 신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(Oanda)
-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, 수출 부진, 대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도 악화되는 상황
  -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
  - 특히 3/4분기에 인민은행이 은행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금리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확대에 나설수 있다고 전망(블룸버그)

〈출처〉 국제금융센터, 국제금융속보('23.8.14.), 중국, 부동산 우려 증폭 등.